

사진 자료



봉선 鳳扇
(조선, 길이 542.0cm)
비단 바탕에 두 마리의 봉황을 장식한 사각형 부채이다.



용봉단선 龍鳳團扇
(조선, 길이 247.2cm)
동근 붉은 비단 바탕에 용과 봉황을 내려앉고 올라오는 형태로 그린 부채이다.



용단선 龍團扇
(조선, 길이 253.2cm)
붉은 비단 바탕에 승천하는 용을 그린 동근 부채이다.



소선 素扇
(조선, 길이 229.0cm)
황색 비단으로 만든 사각형 부채이다. 문양장식이 없어 소선이라 하는데, 흥례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필畢 (조선, 길이 212.0cm)

본래 사냥에 사용하였던 망으로, 직물로 걸을 씌었으나 현재 철제 틀만 남았다.



금장도 金粧刀
(조선, 길이 186.0cm)



은장도 銀粧刀
(조선, 길이 200.0cm)

나무로 된 긴 칼로 금칠, 은칠 후 포도화문 등 길상문을 조각하고 색을 칠하였다. 손잡이 부분에 고리를 달고 붉은 매듭을 부착하였다.